

불서광장



삼론현의 길 지음 박상수 역 | 소명출판 펴냄 | 2만2000원
보살 청호를 얻은 불교학자 용수가 저술한 <중론>과 <십이문론> 그의 제자 제바가 지은 <백론>을 합쳐 삼론(三論)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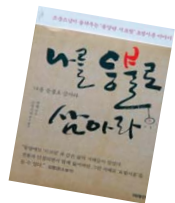
연기론-인식의 혁명 | 신용국 지음 | 하늘북 펴냄 | 1만2000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연기론의 가장 근원적인 발견이다.



불교철학의 역사 | 칼루파하나 지음 | 김중욱 옮김 | 운주사 펴냄 | 2만5000원
26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불교는 어떻게 변용되어 왔는가?



핵심 아함경 | 광철한 역주 | 정우서적 펴냄 | 5000원
<아함경>은 부처님의 원음이라고 말한다. 부처님이 직접 겪고 가르치고 당부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나를 등불로 삼아라 | 원황 지음 | 이소은 스님 옮김 | 미래인 펴냄 | 1만원
중국 명대의 학자이자 관료인 요범(了凡) 원황이 쓴 <요법사훈>은 동양의 '시크릿' 과도 같은 개운서(開運書)에 속한다.



'동다송'의 새로운 연구 | 송해경 지음 | 지명사 펴냄 | 1만8000원
초의 스님의 <동다송>은 한국차문화사의 영원한 고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강원의 '기본교과서' 산문 밖으로 나오다

원순 스님 '치문' 쉽고 간결한 해설서 펴내



전통강원(승가대학)의 학인들이 처음 배우는 교과서 '치문경훈(智門警訓)'... 치는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입은 검소한 수행자를 뜻하고 문은 올곧은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문을 의미한다.

각종 경전을 번역해 대중들에게 공부의 길을 넓혀 주고 있는 원순 스님이 '스님들이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치문 해설서를 냈다.

책의 제목에서 이 책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중요성이 짐작된다. 치문경훈의 원래 이름은 '치림보훈(智林寶訓)'이었다.

가 편찬한 것인데,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없어졌다. 원나라 때 지현영종 스님이 그 좋은 글들을 다시 수습하고 더 보태 치문경훈을 모두 9권으로 발간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말 태고 보우스님이 가지고 들어 왔으며 조선 숙종 때 성종 스님이 난해한 이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주해를 덧붙여 3권으로 구성된 '치문경훈주'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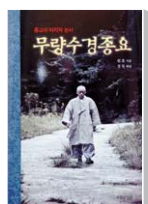
이렇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 치문의 편찬 역사는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을 잘 말해준다. 치문은 강원도의 기본 교재로 뿐만 아니라 선수행자들에게도 탈탈 외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으로 인식돼 왔다.

법공양 펴냄 | 2만원

임연태 기자 nian1@hanmail.net

정목 스님 '무량수경종요' 해설, 정토신앙 진수보여

원효 스님이 밝힌 정토신앙의 핵심



경남 양산 정토원에서 열불 수행에 매진하며 인터넷을 통해 열불신앙을 전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목 스님이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종요>를 해설했다.

<관무량수경> <아미타경>과 더불어 정토종의 삼부경인 <무량수경>은 아미타 부처님이 위대한 발원으로 극락국도를 건설하고 한없는 자비심으로 어떤 중생이나 믿음과 원력으로 행하면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무량수경>은 대승보살의 인과를 실현 가르침의 모범된 말씀이며, 불토의 인과를 실현 진실의 경전으로 꼽힌다.

특정한 사람 혹은 특별한 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신원행(信願行)'을 지키면 누구나 왕생할 수 있다는 보편적이고 희망적인 정토신앙의 출발인 <무량수경>. 신라의 결승 원효 스님이 이 경전의 귀함을 일찍이 간파하고 중요한 대목들을 친절하게 해설한 저술이 <무량수경종요>다.

원효 스님의 <무량수경종요>는 대각국사 의천이 필생의 불사로 추진한 '속장경'에 편입됐던 저술이다. 속장경은 전란으로 소실됐지만 판본이 일본으로 흘러가 그 생명의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정목 스님은 "부처님과 원효 성사께서 가신 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두 분 성인의 은혜를 입고 곳곳에서 많은 불자들이 방황하고 있다"며 "무량수경종요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정토문의 열불수행이 개인과 인류의 역사를 선도할 희망의 종교임을 밝히고자 뜻을 세웠다"고 밝혔다.

자연과 인문 펴냄 | 2만원

연등축제 백배 즐기고 싶다면?



오감만족 연등축제 조계종행사기획단 역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다시 연등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다. 사찰마다 전통등과 장엄등을 만드는 손길이 분주하다. 올해 연등축제는 장충체육관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등지에서 열리며 하이라이프인 제등행렬은 예년처럼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펼쳐진다.

연등축제는 이미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고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이다. 종교적 성격에 전통과 예술적 성격이 어우러져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관광 상품으로 꼽힌다.

연등축제를 즐기려면 축제의 전모를 알아야 한다. 이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축제가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보는 자세도 달라진다. 우리 민족의 삶과 문화를 알알이 반영한 축제면서 인류의 스승 부처님의 생일을 기리는 잔치라는 것을 알면 축제가 더 흥미로워질 수밖에 없다.

<오감만족 연등축제>는 화려하고 장엄한 화보와 함께 연등축제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축제 안내서다. 뿐만 아니라 연등축제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설한 문화 교과서 역할도 손색이 없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est-selling Buddhist books.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Advertisement for 'Mandala Drawing' (만다라 그리기) by Jeongyeo. Includes details about the book series, pricing, and a special event for the 18th issue.